

광주·전남 상장사 1분기 적자 '허덕'

한국거래소 전국 554개사 분석...영업익·순익 하락

한전·금호타이어·대우에이텍 '실적 하위 20' 굴욕

광주·전남지역 주요 상장사들이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1분기에 실적도 크게 나빠지면서 영업이익·순이익 등에서 '하위 20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코스피 상장사 3곳, '영업이익 하위 20위'에 올라=21일 한국거래소가 전국 코스피 상장사 544개사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 감소로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 하위 20위'에 한국전력, 대우에이텍, 금호타이어 등 3곳이 포함됐다.

한국전력은 올 1분기 매출액(15조7060억4400만원)이 3.7% 늘어난 반면, 올 1분

기 영업 손실액(연결 기준)이 1276억1300만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2504억6700만원이 발생해 적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순이익 하위 20위'에 이름이 올랐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우에이텍도 비슷하다. 대우에이텍은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손실액이 207억2900만원, 당기순손실 229억80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순이익 하위 20위'에 오르는 '굴욕'을 맛봤다. 계열사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대우위니아도 지난 1분기 영업손실 224억9400만원, 당기순손실 230억5300만 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영업이익·순이익 하위 20위'에 올랐다. 계열사 2곳이 모두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대우위니아측은 실적 부진 원인을 "가전시장이 건조기, 청소기 등으로 이동하면서 주력제품인 김치냉장고의 점유율 상승에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도 올해 1분기 영업손실(연결 기준)이 171억1400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하면서 '영업이익 하위 20위'에 포함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보해양조도 올 1분기 6억5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56개 기업'에 포함됐다. 금호산업의 경우 올 1분기 13억4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순이익이 96.21% 감소했다.

반면, 코스피 상장업체로 도로안전시설물 제조 및 설치업체인 다스코는 연결기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74억8900만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63.2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기순이익도 51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견줘 64.03% 늘어나면서 '매출액 증가율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지역 코스닥 상장사, 적자 잇따라=광주지역 광트랜시버 제조 및 판매업체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오이솔루션은 1분기 19억9600만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 신재생에너지·생활경산업을 위주로 하는 파루도 올 1분기 영업손실액 22억3100만원, 당기순손실 22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서산도 지난해 1분기 33억4800만원의 순이익을 낸 것과 달리, 올 1분기 2억3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오는 23일 광주·전남지역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한 경영 실적을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65.57 (+4.92)
- ↑ 금리 (국고채 3년) 2.25% (+0.02)
- ↑ 코스닥 872.96 (+3.51)
- ↑ 환율 (USD) 1085.40원 (+7.80)

가계대출 4년 뒤 상환 부담 최고조

주택담보대출 8년 지나도 부담...경기 둔화 위험 요인

전미경제연구소 보고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점을 찍은 뒤 약 4년이 지나 채무상환 부담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가계대출은 자동적으로 채무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중기적으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 이코노미스트 마티아스 드레만과 미 존스홉킨스대 안톤 코리네 교수 등은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게재한 '흐름을 따라가다: 신규 대출, 채무 상환부담 그리고 신용회황 이전'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호주, 일본 등 16개국 가계부채 패널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를 보면 가계 신규대출 정점과 채무상환부담 정점 사이에 평균 4년 시차가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은 8년이 지나도 채무상환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출 계약이 수십년

장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처음엔 경기를 활성화하지만 중기적(5~7년) 오히려 경기를 둔화시키고 위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신규 대출은 반드시 채무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가계 채무상환 부담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4년 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6년에는 연간 가계신용이 139조원, 11.6% 늘면서 증가 규모나 증가율에서 모두 정점을 이뤘다.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8%대로 내려왔다.

우리나라 가계는 이미 채무상환 부담에 짓눌려 있다. 특히 작년 말 기준 150만명에 육박하는 취약계층이 불안하다. 이들 중 21.8%는 순수하게 이자를 갚는 데만 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있다.

21일 한은 경제연구소가 소개한 보고서 핵심내용을 보면 통화정책만으로는 신용회황 위기변동 영향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행렬

납부 의무 없어도 올 74만여명 가입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차원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올해도 계속 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먼저 '임의계속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월 35만4492명에서 2월 36만6823명, 3월 38만3966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4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

달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근래 들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4만9381명,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 2015년 21만9111명, 2016년 28만3132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34만5292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이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해 들어 1월 33만3588명에서 2월 33만5569명, 3월 33만757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이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연합뉴스

농협목포유통센터 "받은 사랑 돌려드립니다" 24일~내달 20일 15주년 사은잔치

농협목포유통센터(사장 김동기)는 개장 15주년을 맞아 '경품대잔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목포유통센터는 2003년 전남권 최대규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개장한 뒤 지난해 600억9200만원의 사업량을 기록, 하나로유통 전국 1위 판매장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6월20일까지 경품대잔치를 열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기간에는 추첨을 통한 고액 사은품으로 골드바, 트롬본조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스타일러, 한우세트, 전통초청 세트를 증정, 7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고급 티슈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15번째, 150번째 방문고객에게는 기념한편을 증정한다. /박기용기자 pboxer@



전남 농공단지 미래를 묻다

전남도 농공단지협·광주전남연구원 24일 활성화 토론회

전남도 농공단지협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고용친화적 농공단지 활성화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농공단지 현안을 살펴 정책에 반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민선 7기 전남 농공단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시·군 경제 담당자 및 농공단지 기초협회의 관계자, 입주기업대표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관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공단지 위상과 제도 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농공단지 현황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농공단지 현황, 문제점, 정책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향도 전남도 농공단지협의회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재인식되고 평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중소 외상 매출 공제사업기금 대출 확대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거래처의 부도·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 매출금에 대한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악화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거래처 부도나 폐업 시 대출 대상이 어음에서 '외상 매출금'으로까지 확대된다.

대출은 중소기업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만 받을 수 있다. 권영근 중소기업회 공제사업기금실장

은 "이번 대출 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 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유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즉시 모를 경영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소기업회 공제사업기금실(☎ 02-2124-4326~9),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빼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